



본란의 기사는 미국내 통상지문회사인 Manchester Trad社의 통상보고서 및 EC주재 변호사의 보고서를 기재한 것이며 세부사항에 대한 문의는 본會國際部(TEL : 553-0941/7)로 연락 바랍니다.

## 1. 클린턴, 미 경제정책 우선

빌 클린턴의 美 대통령 당선으로 미국의 대외정책에서 경제문제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美 국민들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일본 유럽 등과의 경제적 경쟁이 공산주의를 1비롯한 여타 이념과의 정치적 대결보다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클린턴은 지난 선거운동 기간중 자신이 이러한 국민들의 여망에 가장 적합하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집권하면 국가안보회의에 버금가는 기구로 경제안보회의를 창설, 국제경제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것을 대외정책관련 공약의 하나로 제시했다.

그러나 클린턴이 그동안의 이념대립을 어떻게 종식하고 국가경제정책에 대한 기업인들의 뿌리깊은 불신을 어떻게 풀어갈지는 아직 명확치 않다. 클린턴이 일본, 독일 및 EC와의 교역, 경제 및 안보관계를 정립하는데 있어서 부시행정부와는 어떤 점이 다르다는 것을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클린턴은 멕시코 및 캐나다와의 북미자유무역협정을 지지하기는 하지만 부시정부가 체결한 협정내용의 수정을 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 클린턴은 국제무역장벽을 낮추고 각종 무기산업을 민수산업으로 전환해간다는 기본적인 목표에 있어서는 부시행정부와 궤를 같이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고용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는 부시보다 훨씬 보호무역주의적인 자세를 취하게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함께 클린턴이 대외경제정책과 관련 부시행정부로 부터 떠맡게 될 중요한 과제중 하나가 미·EC간의 농업보조금 감축에 이견으로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UR 국제교역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 2. 美경제 본격 회복국면 진입

3·4분기중 미국기업들의 수익 및 국내총생산(GDP)증가율이 분석가들의 당초예상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월 스트리트 저널이 2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6백21개의 주요기업들은 1·4분기와 2·4분기중 각각 34%와 18%의 순수익 증가율을 기록한 데 이어 3·4분기 중에도 30%의 높은 순수익증가율을 기록했으며 세후 수익 역시 27%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또 美경제는 2·4분기중 연율로 1.5% 성장한 데 이어 3.4분기중에도 2.7%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경제전문가들은 이같은 추세가 당분간 지속돼 올해와 내년도 美기업들의 세전수익은 각각 14.2%와 12.5% 증가할 것으로, 인플레이를 감안한 GDP증가율은 올해 1.8%와 2.7%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은행 및 증권회사들의 수익이 크게 늘어난 반면 항공회사들의 수익은 격감했으며 자동차회사들의 수익은 혼조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치침체와 유럽의 통화혼란으로 자동차 빅3중 GM과 포드는 경영손실을 기록한 반면 유럽에 영업망을 거의 설치하지 않고 과감한 원가절감조치를 취해온 크라이슬러는 상당한 수익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가들은 GM과 포드의 경영상태는 4·4분기중에도 호전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점치고 있다.

저금리·원가절감조치·우량대출증가 등의 요인에 힘입어 3·4분기중 은행들의 수익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분석가들은 이 같은 추세가 4·4분기까지 이어져 올해 미국 은행들의 수익이 사상최고를 기록했던 지난 88년의 2백5억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3·4분기가 전통적으로 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주요항공사들은 지난 여름의 극심한 요금인하전쟁 후유증으로 막대한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 3. 가트 반덤핑조, 패널설치

가트 반덤핑 위원회는 EC·일본간 오디오 카세트 테이프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패널을 설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동위원회의 아르만도 오르테가 위원장은 패널설치 합의전에 중재와 조정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고 말하고 일본측이 덤핑률산정의 정확한 근거와 방법론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합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EC는 일본산 오디오 카세트 테이프가 EC 시장에 덤핑가격으로 수출되고 있다고 판정, 일본산에 대해 15~25%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했고 이에 대해 일본은 덤핑관세율이 터무니없이 높으며 산정기준상의 하자도 있다고 가트에 제소했다.

### 4. 미국, 4MD램價 급등

미상무부가 지난21일 한국산반도체에 고율의 덤핑예비판정을 내리자 미반도체 시장에서 4MD램가격이 급등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미시장관계자들은 예비판정이 내려진 21일 이후 1주일사이에 4MD램가격이 무려 10~20%나 급등, 현재 10달러전후에 거래되고 있다고 밝혔다.

미상무부는 지난주 덤핑예비판정을 통해 삼성전자제품에 대해 80% 이상, 금성사. 제품에 대해 50% 이상의 고율관세를 부과기로 결정한바 있다.

한국산반도체에 대한 덤핑예비판정을 계기로 미시장에서 반도체가격이 이같이 급등하자 일본반도체업체들은 재빨리 시장확대를 위해 가일층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데 미컴퓨터시장에서는 수요회복에 힘입어 콤팩과 애플 등이 지난 6~9월기간중 저가격퍼스널컴퓨터 출하량을 크게 늘려왔으며 이에맞춰 4MD램 거래도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이같이 미반도체시장에선 반도체최대수요처인 퍼스널컴퓨터시장이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앞으로 4MD램 수급이 더욱 타이트해 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따라 앞으로 퍼스널컴퓨터수요가 본격적인 활기를 띠 경우 4MD램의 품귀현상이 예상돼 가격이 폭등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5. 한국, (일본), 터키, 태국, 싱가포르, (홍콩), 중국, 말레이시아산 CTV A/D

현재 '92. 11월 중순에 동케이스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개시될 것으로 예상되며, 일본과 홍콩이 현실적으로 동 조사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홍콩이 반덤핑 조사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는 이유로는 홍콩원산지의 CTV가 부재하다는 증거자료를 홍콩정부가 EC 집행위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 6. EC 통상기관과 협회의 규정/정책입장

#### • Common Customs Code

'92년. 10월. 19일 EC Community Customs Code을 제정하는 Council Regulation이 채택되었다. 동 Code의 채택은 EC 역내시장의 완성을 향한 중요한 조치로서 EC의 단일성(Uniformity)을 보증하는 것이다. 동 Code는 현행 대다수의 Regulation과 Directive을 포함하는 관세법(Customs legislation)조항을 조합한 것으로서 현행법을 수용, 필요시 수정, 기존법에서 빠진부분을 삽입했다.

#### • Article 113

'92년. 10월. 12일 Article 113 Committee 미팅이 열렸다. 한국전자산업에 미치는 중요한 것은 blocking minority(가중 소수결)을 지지하는 EC 회원국들이 반덤핑조사 절차상의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나아가, EIAK와 EIAK 회원업체의 관심사안은 중국의 대외 무역법 시행령과 ED의 현행 대만과의 무역문제에 관한 토의였다.

### 7. 일본산 DRAMs A/D

Article 14 review 결과 EC Council은 일본산 ball bearings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를 수정하였다. 동 Regulation과 Decision이 한·EC 전자통상에 미치는 영향은 미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8. 세계 무역 협상

지난 2주동안에 걸쳐 UR협상은 중대 위기를 맞았다. 미·EC간의 농산물 분야 협상에서 이견해소를 향한 상당한 진전이 있었으며 '92. 10. 21~22 양일간의 회의에서 타결될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EC측은 미국측의 합의안을 옹호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92 10.21 협상에 임했다. 정확히 말해서, EC측은 보도에 의하면 합의될 EC의 수출보조금 감축에 대한 양보를 거부했으며 (EC측은 보도에 의하면 향후 5년간 8%의 감축을 제안한 반면, 미국측은 향후 6년간 24%의 수출 보조금 축소를 주장) 미국측의 협상거부 표명 이후 새로운 EC측안을 상정했다.

미·EC 실무급 협상자들간에 협상이 진행중에 있으며 (Ray Macsharry EC 농업부문(DGVI) 집행위원은Ed Madigan 미 농무장관과의 최종 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계획이다) 동미팅은 '92. 10. 31~11. 1에 열릴 예정이다 미·EC간의 농산물 분야의 협상타결 또는 협상이 결렬될 것으로 예상된다.

### 9. EC 산업정책

노르웨이와 핀란드는 유럽경제통합(European Economic Area)조약을 비준하고 아이슬란드와 스웨덴은 동조약을 내주안에 비준할 예정이나 스위스와 리히텐슈타인이 '92년 12월 있을 국민투표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오스트리아는 '92. 9.22 동조약을 비준하였으며, EEA가 '93. 1.1에 발효될 전망이다.

현재 동조약에 대한 국민투표가 실시될 경우, 노르웨이 국민은 노르웨이의 EC회원국가임을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